

# 韓 근로시간 OECD 5위...야근시간 첫 10시간 밀으로 줄어

### 통계청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주당 평균 근로시간 41.5시간

###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하위권...평균 휴가일수도 감소

우리나라 직장인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42.8시간) 대비 1.3시간 감소했다.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년 전인 2010년만 해도 45.2시간이었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0시간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43.9시간, 38.3시간으로 전년 대비 1.3시간씩 줄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주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79만 7000명 증가했다. 반면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1000명 줄어든 2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근로시간도 감소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2시간으로 전년(173.3시간) 대비 2.1시간 줄었다.

총 근로시간 중 초과근로 시간은 9.5시간으로 전년(10.1시간) 대비 0.6시간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0시간 아래로 떨어진 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별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5~9인 사업체(4.2시간~4.3시간)를 제외한 사업체에서 모두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1.4시간(0.2시간 감소)이었으며, 10~29인, 30~99인 사업체가 각각 9.1시간(0.2시간 감소), 14.9시간(1.4시간 감소)으로 집계됐다.

100~299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도 초과근로 시간이 16.7시간, 11.7시간으로 전년 대비 1.1시간, 0.6시간 감소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길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7시간으로 당해 통계가 작성된 국가 중 멕시코(2347시간), 코스타리카(2209시간), 칠레(1999시간), 러시아(1988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었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각각 1305시간, 1706시간, 1792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근로시간이 매우 긴 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휴가일수는 5.4일로 2016년(5.9일)보다 감소했다. 다만 1년간 휴가 경험 비율은 68.1%로 2년 전(64.2%)보다 3.9%포인트(p) 상승

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휴가 일수가 5.4일, 여성이 5.3일이었으며 휴가 경험 비율도 남성이 70.0%로 여성(66.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휴가 경험 비율이 8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80.6%)와 20대(74.7%), 50대(71.0%)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12분, 18분 증가했다.

다만 15세 이상 국민의 희망 여가시간은 평일이 평균 4.0시간 휴일이 6.2시간으로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롯데마트 - 산타의 선물  
18일 서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잠실점에서 모델들이 '산타의 선물'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의 선물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25일까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완구부터 전자게임기 등을 할인 판매하는 '산타의 선물' 행사를 진행한다.

## 금호,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타이어부문 12년 연속 1위

금호타이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19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조사 승용차타이어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NPS는 한국 각 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해본 고객이 이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하는지를 조사해 수치화한 고객추천지수다. 올해 KNPS 조

사는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비자 1만107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소비재·내구재 제조업, 서비스업 등 총 103개 산업분야 중 승용차타이어부문에서 62.1점을 얻어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수는 적극추천 응답비율과 비추천 응

답비율을 산정해 도출된다. 적극추천 응답비율이 67.2점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검증 받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3사(금호타이어·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 중 내수 점유율 1위를 지키며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뉴스1

## 신의 물방울이 '소줏값'...대형마트 '5000원 vs 4800원'



# 지난 17일 서울역 롯데마트 와인 매장 정면엔 4800원 판매대가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매장 앞쪽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만1900원 코너도 있었다. 지나가다 저렴한 가격에 멈춰선 한 30대 남성은 4800원짜리 와인을 큰 고민 없이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식당 소주 1병 값으로 집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다"며 "와인 가격이 낮아져 부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와인 전쟁'에 비싼 술로 여겨졌던 와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와인 가격을 5000원 아래로 내리며 '가격 하락'에 불을 붙였다.

떠나간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

오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와인이 '제격'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과도 나쁘지 않다. 와인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12일부터 '나투아 스페셜 셀렉션' 750ml 와인 1병을 4800원에 판매 중이다.

그동안 와인이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과격적인 가격이다. 떨어진 가격에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었다. 4일 만에 2만병이 팔렸다. 초기 확보한 10만병은 조기 완판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판매 추이에 따라 추가 발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이마트도 와인 코너가 부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등장한 국민가격 와인 도스코파스(4900원·750ml)는 100일 만에 총 84만병이 팔리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홈플러스도 와인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인기 제품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2019 베스트 기획전'을 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외면받았던 와인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와인업계는 앞서만하 '신의 물방울' 때처럼 와인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와인 판매 비중은 1년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올해는 초저가 와인으로 새로운 고객을 흡수한 만큼 매출 추가 증가를 기대하는 눈치다.

와인 가격이 떨어진 것은 대형마트들이 대량발주에 나섰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뺏긴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와인을 택했다.

이에 당분간 와인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에 쓸렸던 오프라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초저가 와인에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